



들꽃편지 647

2022.12.22. 동지호
<https://cyw.pe.kr>

그 사람의 아들(인자)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마1:23) 임마누(Immanu, 우리와 함께 있다)와 엘(El, 하나님)을 조합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 독립군이라 여겨서 순식간에 로마에 의해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내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겠다.”고 큰소리쳤다면 그는 당장 일본군에게 잡혀서 끌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랍비, 선생님, 메시아... 등으로 불렸지만, 자신은 항상 '그 사람의 아들(인자)'이라고 자칭하셨습니다.(4복음서에 인자라는 단어가 총 90번 나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7:13-14에 예언된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람의 아들은 '하늘의 권세와 자원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그 The'를 번역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알의 아들 주몽'이나 '곰의 아들 단군'밖에 없죠.

♥운동을 나갔다가 너무 추워서 다시 들어온 최용우 올립니다.

함께
라서
참 좋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모두 다 우리 함께

좋다 좋아
우리 함께 하는
이 시간 참 좋다.

-최용우

고마운 세상

이렇게
오뚝을
시원하게
눌 수 있다니!

오, 고마운 세상!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38 안 되고

경비하는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쩌다 한 번씩 경비실에 들러 과거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 조폭 대장이었으며 서울 강남, 이태원 등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었을 정도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폭력이 직업이었고 그로 인하여 돈을 굶어모으고 원없이 써 보았지만 지금 남은 건 17평짜리 낡은 아파트와 병든 몸뿐이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제가 도시락 두 개를 싸 들고 다니는 것을 알고 집에 있는 반찬을 조그만 반찬통에 담아서 가지고 경비실을 찾아와서 이것저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어 옵니다.

“주님!

지난날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분은 악해서 안 되고, 교만해서 안 되고, 아집이 강해서 안 되고

고집스러워서 안 되고, 포악해서 예수님을 안 믿을 거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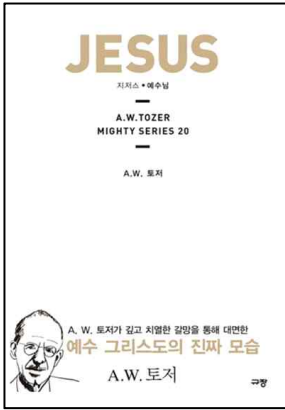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JESUS



토저 마이티 시리즈 20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00쪽 11,000원 규장 2012

살아 있는 믿음은
진정한 '앞'에서 시작된다.
모든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붙들라!

1. 영광 가운데 계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하신 모든 것이 영광스럽다고 자주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기독교가 있다. 그런데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영광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일에 열심히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모든 기독교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승리자가 되셨고, 또 높아지시어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일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곁의 무리 중 유일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계시실 것이다.

하늘에서 영광의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2.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서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히브리서의 분명한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내세우는 온갖 종류의 철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에 의지하는 인간의 머리에 호소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은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히브리서는 책이요, 메시지요, 계시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아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그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연구하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 물질과 운동, 삶과 법칙, 형식과 질서, 모든 목적과 계획, 모든 일의 진행이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고 끝난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핵심을 찌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주이시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며, 아버지처럼 영원한 분이시요,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

3.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의지한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기록되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에게서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다. 그분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은 아니셨지만, 성부께서는 성육신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실 때 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인격은 때로는 ‘실체’, 때로는 ‘본질’이라고 불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가시적 형태와 신빙성을 부여하신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본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동일하게 느끼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행하신다.

4.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

에게 주신 신적 진리의 계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살아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붙들고 계신다. 그분은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눈길이 주변 세상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신다.

5. 한 분 하나님의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에게 스스로를 주권적 성부와 영원한 성자와 성실한 성령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하신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속량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원하신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복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삼위께서 서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루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머뭇거리지도 않으신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말 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협력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셨고, 성령은 그 제물을 성부에게 전하셨고, 성부는 그 제물을 받으셨다.

6.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한 우주의 모든 것과 관련 있다. 모든 것은 신성의 옷이 되기 위하여,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 있는 우주적 표현이 되기 위하여 창조되고 배치되었고, 질서 가운데 유지되어 왔다.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할 때 그 만유는 어떤 만유인가? 그것은 장차 최종적으로 완전해진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모든 세대의 속량 받은 사람들, 천사, 스랍들뿐 아니라 물질, 정신, 법, 영, 가치, 의미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존재의 삶과 사건들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교향곡이 완성되려면 한 부분도 빠짐없이 모든 부분이 필요하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답을 구하라. 그분은 주권적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

7. 천사들의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해주셨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계시해주셨다. 천사들은 초월적 존재들의 무리이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거룩한 존재이며 또 무성(無性)의 존재이다. 성경은 천사들과 접촉하게 위한 노력에 시간을 투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천사들이 존재하며 바쁘게 활동한다고 가르칠 뿐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분만의 방법과 수단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천사들로 인해, 또 그분의 섭리가 만들어내는 환경으로 인해 날마다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마음만 있다면 그런 섭리는 언제 어디서나 발견된다.”

8. 의(義)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는 없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부음과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신성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인성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셨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기름부음은 그분을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기름부음’이었다(히1:9)

하나님의 도움과 영적 능력을 얻으려면 어리석은 타협을 거부해야 하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를 얻을 수 없고 복도 받을 수 없다.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당신의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라. 당신의 남편이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라. 당신이 속한 사회 계급이나 제도가 용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물리쳐라. 악이요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구주께 불쾌감을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즐거움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길 거부한다면, 죄와 악과 잘못된 것을 미워하길 거부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비밀결사의 집회 장소나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과 장차 임할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말라.

9.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연약하고 변하기 쉬운 우리 인간들에게 그분의 영원한 호의와 관심을 확신시켜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를 둔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의지에 따라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또 그리스도인이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때문이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거스를 수 없으시다. 그분은 성품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10.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히7:3)라고 말한다. 근원을 추적할 수 있는 족보가 없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족보를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내구성이 강한 명판에 새겨서 보존했던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속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다른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7:25)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11.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진리이다. 하나님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언약은 그분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보증한다. 우리는 그분과 화목되었다. 그분의 은혜로운 새 유서, 즉 그분의 언약은 죄사함을 보증한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분 가족의 일원이 된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살아 계신 분을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12. 그림자가 상징하는 실재(實在)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반복의 번거로움에 개의치 않고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조시킨다.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구약의 의식들을 대조시킨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의 참된 빛이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취셨고, 그 빛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긴 그림자가 구약의 일시적 경륜이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독서일기> 이재익 목사(일본 니이가타교회)

두레박

우물 깊은 곳에
두레박을 내려
시원한 물을
퍼 올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
두레박을 내려
따뜻한 말을
퍼 올립니다.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덧글]

나무 /우리 동네에는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리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우물가에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물에서 물도
긴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재잘재잘 길어내기도 했습니다.
수도가 생긴 뒤로 우물가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지만 우물물은 여전히 차
고 시원합니다.

가을과 하늘 /좋은 곳이에요. 추억도 같이 꺼내놓으시니 보물샘 아닌가 합니다
짧은 시에 들어있는 보물 하나 하나 꺼내 봅니다. 그 맛도 황홀하게 시원
하고 달콤합니다.. 고운 글 머물다 갑니다..*^^*

문유훈 /간결하고 소박한 시가 고향마을 언저리에 서성이게 합니다
멋있는 시 자락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의 신을 보는 관점 비판



227..헤르메스는 이집트 종교의 실수를 어떻게 인정했는가?

헤르메스는 “경건하지 못한 우리 조상이 신들의 예배와 종교를 소홀히 여기고, 신들의 관념에 대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신들을 만드는 기술을 생각해 낸 것이다.”라고 하는데, 헤르메스는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신들을 만드는 기술을 창안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228.거룩한 천사와 인간은 공존할 수 있다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살며, 비록 그들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섬긴다. 우리는 부정함 마음으로 지상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들과 교류를 맺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되어 천사처럼 될 때는 믿음으로 천사에게 다가가게 된다.

229.이교도의 모든 종교는 죽은 사람과 이어져 있다

헤르메스는 “우리는 많은 점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에 의해 또, 성스러운 종교의 예배를 거스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우상 숭배, 성소와 신전, 피라미드)이 이집트에서 사라질 날이 언젠가는 오는 것을 슬퍼하며, 그때는 성소와 신전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이 땅은 무덤과 죽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헤르메스는 우리(그리스도교도)의 순교자들의 기념예배당이 그들의 신전과 성도를 대신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슬퍼하였다.

230.그리스도 신자는 순교자들에게 어떤 영애를 주었는가

우리는 순교자들을 위해 신전을 세우거나 성직자와 종교의식을 정하고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이 신이 아니고, 그들의 신이 우리의 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잘못된 허구의 신념을 지닌 자에게 참된 종교를 알리기 위해, 육체의 죽음에 이르도록 진리를 위해 싸운 그들의 유업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의 것으로서 찬양한다.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 5

(Love of God)



39.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말하게 하고 나의 모든 말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얼마나 달콤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가시와 영경귀로 뒤덮여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는 세상을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덮여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하고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니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 그 사랑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얼마나 내 기쁨이 충만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내 마음에서 죄와 부패를 불태워 버리고 나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 어떤 것과 내 주님에게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머물러 있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내 영혼으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나로 하여금 천국을 열망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이나 곤고나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7306)

40.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옥에 갇히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생각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명예롭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 티끌 같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내가 위대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니...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없으며,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으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으며, 그것보다 더 황홀하고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그토록 완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천국으로 열린 창문을 통해 멀리서나마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슬쩍슬쩍 보일 때, 나의 마음이 어찌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도 놀라운 기적인 것을 알면서도 오! 불친절하고 부자연스럽고 게으르고 매정한 나의 영혼이여! 죽어있고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힘으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소서! (7307)

41.사랑의 표준선과 애정 행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며, 하나님과 불꽃같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시기 질투하며 극렬히 반대하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빠지면 그에게 바치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되듯, 나의 모

든 것을 다 드러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표현과 애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다녔던 아주 작은 교회의 담임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울먹이면서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씩 그 전도사님과 같은 애타는 심정으로 내가 나에게 설교를 합니다. “용우야!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내에게 바치는 100편의 시를 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쓰다 보니 200편이 되어서 곧 시집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도 시를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편씩 365편을 썼습니다. 한번 더 365편을 썼습니다. 더 쓰고 싶어서 계속 쓰다 보니 1천편이 되어 세 권의 두꺼운 '사랑' 시집을 펴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7308)

42.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랑

하나님은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잠23:26)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드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현란한 수식어를 쓰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떤 형식이든 마음이 없는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구제나 희생이나 헌금도 헛수고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1-3)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와 재산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고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받고 싶다 하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별로 착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가치가 없는 것임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받아서 새롭게 바꾸어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반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통 다 모두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7309)

43.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로 향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이유입니다. 돈, 권력, 명예, 자존심, 정욕, 집착, 가족, 일...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내 인생을 다 걸고 따라갈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내 마음을 얻으려고 나에게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영과 자기의 형상과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어떤 것을 지불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분의 집인 천국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사단 마귀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내 마음을 눈멀게 하고, 속이고 부패시키고 노략질하고 남용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깨끗하게 각 성시키십니다.(시51:10,엡2:1,렘24:7) 그런 다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십니다.(겔36:26,고후5:17,딤후3:3-5,딤후2:14) 그런 다음 그 마음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시고 명예롭게 하십니다.(요12:26) 그런 다음 자신에게 가까이 에 두고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기뻐하십니다.(요16:27) 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7310)

44. 사랑과 믿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길게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잠8:3, 잠8:13)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부스 장군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이 없는, 구원만을 좇을 날이 올까 봐 두렵다. 믿음이 있지만, 회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은 존재하지만, 지옥은 없다고 할 것이며 악을 미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윌리엄의 염려는 현실이 되어 오늘날 신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시119:16)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시119:113)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마음을 둘 곳이 아닌 곳에 마음 두는 것을 싫어하시고, 두 마음 품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판 가롯 유다를 사랑하셨지만, 가롯 유다의 ‘악’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도 반대로 뜨겁고 강렬하게 노를 발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시편97:10) (7311)

45. 사랑의 착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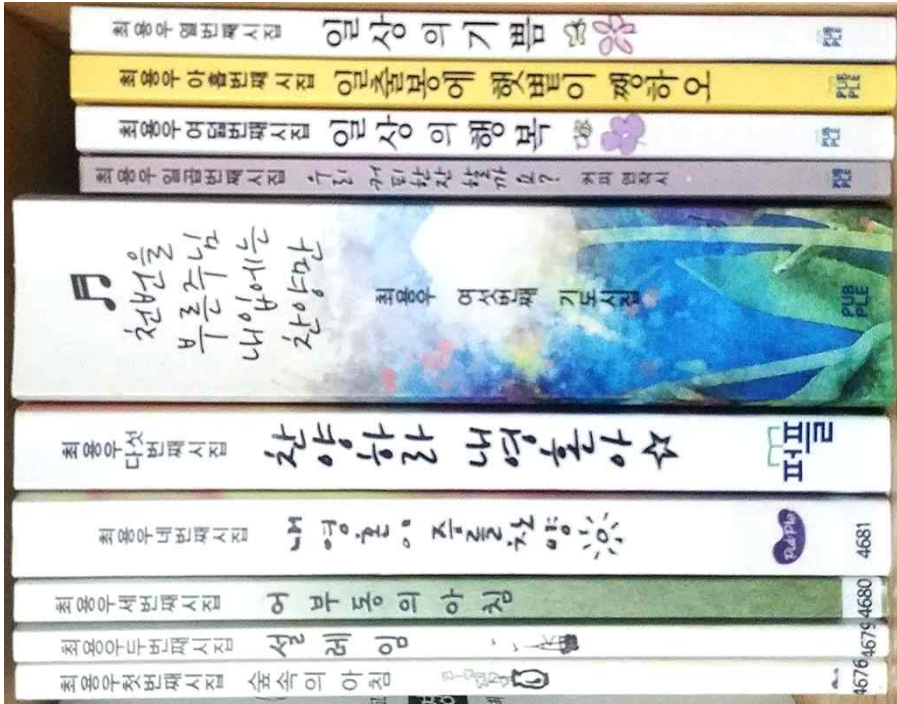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잠언6:16-19) 하나하나를 나에게 적용해가면서 읽어보면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나만의 ‘착각’은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연맹’같은 단체는 낙태를 허용하고, 인체 장기인 ‘출기세포’를 팔고 있습니다. 맵소새! 우리가 나치 독일과 같이 된 건가요? 비공식 통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해 낙태 시술을 150만건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30만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라면 ‘낙태는 살인’이라고 당당히 맞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도 낙태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이사야5:20)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기독교인이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북이든 남이든 그런 편 가르지 말고 악한 놈들은 악하다! 하고 쓴 것은 쓰다!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기독교에 달라붙어 그들의 방패막이, 육반이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그게 사랑의 착각은 아니겠지요? 끝! (7312) ©최용우

□여유일기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



7 (사진:최용우)

시인 등단

“시집을 또 내셨네요. 전도사님은 등단 안 하세요? 우리에게 시를 열 편만 보내 주시면 등단시켜 드릴게요.” 잇을 만하면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시를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 계심.

우리나라는 등단을 해야 시인으로 인정해주는 괴상한 제도가 있다. 한국문학의 권위주의와 연고주의의 단편이다. 그런 것이 싫어서 등단하지 않은 나는 ‘자칭 시인’이다. 신문사 ‘신춘문예’와 유명한 ‘문예잡지’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돈(상금)받고 등단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다. 그러다 보니 ‘문예잡지’ 하나 만들어 놓고 돈을 내면 등단시켜주는 소위 ‘등단 장사’가 생겼다.

각종 ‘문인협회’라는 곳도 ‘그들만의 끼리끼리’ 리그를 벌이는 곳이라 나는 백로는 아니지만 까마귀 노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냥 누가 인정해주든 말든 ‘자칭 시인’으로 살 것이다.

단순함

“전도사님, 햇별같은이야기를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시다. 지난 글까지 읽는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햇별같은이야기는 한달에 24회만 발행하시나요?”라고 햇별같은이야기 카페에 올린 아무개님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제가 쓰는 햇별같은이야기 발행 스케줄 노트가 한페이지 칸이 24칸이어서 한 페이지에 한 달씩 그래서 24번 발행합니다.” ㅎㅎ

아무개 목사님이 ‘농심라면’만 드신다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집에 있는 냄비가 둥근 양은남비인데 농심라면은 모양이 둥글어서 자르지 않아도 썩 들어가기에 농심라면만 드신다고 하셨다. 다른 회사의 라면은 사각형이라 반으로 잘라야 한단다. 나도 그렇지만 아무개 목사님도 참 단순하시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보면 그냥 단순한 이유인 경우가 많다.

스러져 가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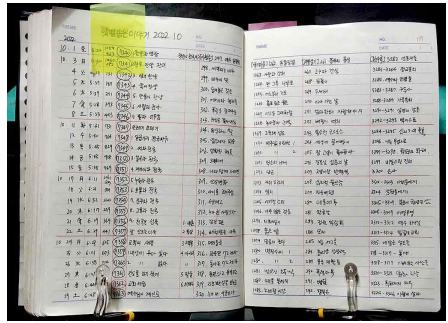
지난 9월 23일에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 두 개를 누군가가 대문 옆 담장 위에 올려놓은 것을 사진으로 찍고 그새 잊어버렸다.

오늘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에 그 감이 들어왔다. 아, 감은 약 50일이 지나면 이런 모습으로 스러져 가는 구나!

사진 한 장 찍고 집으로 들어왔다.

앞으로 내 눈에 또 들어온다면 그때는 더 작아진 모습이거나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일지도 모른다. 2022년에 저 담장 위에 감 두 개가 얹혀 있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망각 속으로 지워지는 것이다.

윤동주 시인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했다. 가만히 내 주변의 사물들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사물 하나하나엔 내가 알 수 없는 무수한 사연들이 스며들어 있다.



양심을 버리십니까?

예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양심을 마음속의 삼각형이라고 비유했다고 한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짓을 하면 이 삼각형이 돌아가며,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모서리가 무뎠지면서 나중엔 원이 되어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내가 매일 산책 하는 용수천 뚝방길에 어떤 놈이 쓰레기 두 자루를 버리고 갔다. 처음엔 잠시 놓아두었다가 가져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다. 안을 살펴보니 담배갑이며 음식 시켜 먹은 스티로폼 쥬스병과 일반 쓰레기가 들어 있었다. 누구인지 참으로 양심이 퐁퐁퐁퐁 원이 되어 버린 놈이다.

증자에 보면 '天知, 地知, 我知, 子知.'라 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

어떤 놈인지... 하늘이 안다고 했으니 '인공위성'이 다 찍었을 거야.



눈 인사

용포천에서 해들교차로 올라가는 언덕에 등치가 큰 텍시도 고양이 한 마리 산다. 항상 정자 옆 바위 위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지 밥그릇이 정자 아래 놓여 있다.

나는 정자에 걸터앉아 고양이를 바라본다. 고양이도 날마다 보는 나를 경계하지 않는다.

살그머니 눈을 떠보곤 귀찮다는 듯 그냥 눈을 감아버린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던 말든 꿈쩍도 안 한다. 아주 도통한 고양이이다.

기름 눈을 깜빡여주는데 그게 친한 사람에게 보내는 고양이의 '눈인사'라고 딸이 가르쳐 주었다. 나도 고양이와 똑같이 눈을 깜빡여준다.

그런데 멀리서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뭐야? 내가 있을 때만 가만히 있었던 거야? 이런...

고양이가 나를 만만하게 본 것 같군!



참 놀기 좋아해요

동네 주차장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우리집에까지 들려오기에 슬슬 가 봤더니 <제4회 세종대평전통시장 가을 한마당 축제>를 하고 있었다. 초청 가수들도 몇 명 오고 경품추첨도 하고 주변에서 물건도 판다. 이태원 사진으로 잠시 잠잠했었는데 슬슬 눈치를 보면서 다시 이런저런 행사를 시작하는 것 같다.

시장 전도를 하러 나왔던 대평성서침례교회 박 목사님이 웃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노는 거 좋아해요.”

“그렇죠. 흥의 민족이니 마당에 멍석만 깔아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잘 놀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관하여 마을 행사를 자주 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들이 자기들끼리만 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다. 주도권을 세상에 완전히 빼앗긴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오해 회개

동네 주차장에 우리 차를 주차 시킨 얼마 후에 전화가 왔다.

“8009 차주분 되시죠? 차가 걸려서 트럭 돌기 힘드니 인쪽에 대주세요”

얼른 주차장으로 나가보니 내 차 옆에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다. 항상 그 자리에 낮에도 주차 되어 있는 트럭이다.

“이 정도도 못 돌아나가면 차 운전 안 해야지. 개인 주차장인 줄 아니야.”

그 후로도 트럭을 보면 한 번씩 찌러보며 지나갔다.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트럭 옆에 차를 주차했더니 또 전화가 왔다.

“새벽에 쓰레기 실어가는데 트럭 돌기 힘드니 인쪽에 주차해 주세요.”

뭐야 쓰레기? 아하~ 새벽에 청소차 트럭이 쓰레기를 싣고 돌아나가는데 힘들다는 거였어? 그럼 처음부터 청소차라고 하지.... 괜히 엄한 트럭만 오해를 했다.

아이쿠 미안해라. 앞으로는 저 트럭을 볼 때마다 오해한 만큼 축복을 해주어야지.



여자들은

우리 동네에 각종 카페가 40개나 있다는 동네신문 기사를 보고 카페 앞을 지날 때마다 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다. 남자는 별로 없다. 여자들은 세대를 불문하고 대화를 즐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카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옹기종기 모여앉아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남자들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동네 운동장에 보면 남자들 밖에 없다. 간혹 남자같이 생긴 여자들이 한둘 있을 뿐이다.

남자들은 아내와 함께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주말을 즐기고 싶은데, 여자들은 어디 맛집 같은데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얘기를 하고 싶어한다.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행복'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은 불만이 쌓인다.



핸드폰

카톡에 박살난 핸드폰 사진이 올라왔다. 요즘에는 “아빠, 나 밝은인데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하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펀톡이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적으로 올라온다.

나: “아이고, 이제 핸드폰이 박살났다고 사진까지 올라오네...”

아내: “진짜 밝은인지 모르잖아요.”

나: “핸드폰이 박살났다면서 박살난 폰으로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 도대체 이런 카톡은 왜 보내는겨? 밝은이랑 아빠 폰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진짜 밝은이다, 아니다 속으면 안 된다. 하며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내 폰으로 전화가 왔다.

“...아빠, 저 밝은이인데요. 진짜 저 맞아요.ㅠㅠ”

제 폰이 박살 났어요.. 구해주...세...요,,”



밥통한테 졌다

“설교를 할 때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활짝 웃게 만들지 않으면 그 설교는 맛있는 밥이다. 글을 쓸 때 최소한 한 번 이상 빙긋 웃게 만들지 못하면 그 글은 죽은 글이다.”라는 글을 오래전에 썼었고, 항상 그 원칙을 따르려고 애를 쓴다.

오늘은 <기뻐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나의 웃음 포인트를 너무 잘 아는 아내를 웃기기가 너무나 힘들다. 아내가 웃을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다 뒤집어진다.

몇 번 유머를 시도했다가 반응이 그저 그래서 포기했다. 하품이 나오는 그저 그런 설교를 하다가 “밥통이 밥 다 해 놓고 칙칙폭폭 합니다. 밥 다했다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모양입니다.”는 대목에서 아내가 빵 터졌다.(쿠쿠 밥솥은 스팀 빠질 때 칙칙폭폭 소리가 남)

쩍, 완전 자존심 상해.... 밥통한테 지다니...



취미이유 푸수욱 취미이유... 실제 소리가 아니라 오디오 파일이라고 할 실제 소리 아니었다니 ㅎㅎ
원칙 쿠쿠 개발자입니다. 증기를 배출 후에 나오는 칙칙폭폭 증기 배출 소리는 진짜 압력솥 솔레노이드밸브가 열리면서 나는 증기 배출 소리입니다. 그걸 스피커로 얼마나 정교하게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 불을만 보이스를 용량이 남아볼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하지 마세요.

굴러다니는 호박

뜬금없이 며칠 전부터 동네 골목길에 호박 한덩이가 굴러다닌다. 사람들이 발로 차고 다니는 것을 주워서 주차 방지턱 위에 올려놓았다. 버림받은 것인지 누가 흘리고 간 것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박이 깨지면 골목길이 지저분해지니 우선 아무데나 올려놓았다.

저 호박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단단한 것을 보니 상해서 버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저 호박 한 덩이를 하나님께서는 비와 바람과 별과 나비를 보내 주시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밤에는 별빛으로 새벽에는 이슬로 한낮에는 햇볕을 쬐이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과 세포 분열을 시켜서 저만큼 키워 놓으신 것이 아닌가.

누구든 길잃은 호박을 얼른 모셔 가기를.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83회 비학산266 (일출봉252m)

산을 오르다 말고 가만히 서서 마음을 모으고 산을 가만히 바라본다. 우리나라 가을은 정말 색깔이 이쁘다. 노란 은행나무, 갈색으로 물든 참나무,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 여전히 푸르른 소나무, 반쯤 물든 느티나무,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양한 나무들...

밭에는 무와 배추가 막바지 살을 찌우는 중이고, 고추는 빨갭게 익어가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밭에 들어오는 고라니를 막기 위해 쳐 놓은 그물망, 고구마를 캔 밭의 흙... 크게 심호흡을 하며 가만히 가만히 내 눈에 들어오는 가을을 마음껏 음미한다. 마치 감미로운 차 한잔을 음미하며 마시듯이...

누군가가 멀리서 나를 보았을 때, 가을의 한쪽을 가만히 서서 채우고 있는 풍경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산행에서 나는 가을 풍경이 되었다.(2022.11.3.)



▲제584회 비학산267 (일출봉252m) 2022.11.10

▲제585회 비학산268 (일출봉252m) 2022.11.16

▲제586회 비학산269 (일출봉252m) 2022.11.23.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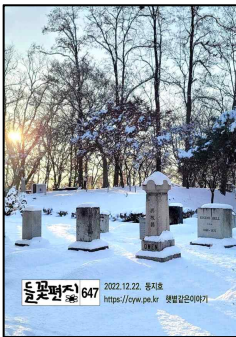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동지에는 팔죽

우리나라에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冬至)날엔 팔죽을 만들어 나눠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따뜻한 팔 음식은 활동량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쉽게 피로해지는 우리 몸을 보호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영양식입니다. 먹거리가 부족한 겨울에 영양분이 풍부한 팔으로 양분을 보충하라는 조상들의 슬기로움이었지요.

팔에는 비타민, 칼륨과 사포닌 함량이 풍부해 몸의 부기와 노폐물 제거,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비(B)1 함유량이 가장 많으며 인, 철분, 니코틴산,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꼭 한 그릇 먹어줘야 합니다.

전라도에서는 팔갈국수를, 위로 올라올수록 새알갈국수를 많이 먹습니다. 요즘엔 마치 '라면'처럼 즉석에서 끓여 먹는 팔갈국수 제품도 슈퍼마켓에서 팝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광주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 뒷산 '양림선교동산'에는 26인의 선교사 묘비가 있습니다. 1904년부터 전라도 일대에 들어와 사랑과 헌신을 다해 선교를 하다가 천국에 간 선교사들의 묘역입니다. 오늘날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라도인 이유는 이 지역에 최초로 눈물과 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분들 덕분입니다. 광주 양림동 지역에 남아있는 기독교 유적지 선교투어(문의 010-3007-9142)사역을 하는 최용남 목사가 찍은 '양림선교동산'입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 신간 <들꽃면지7권 민들레호> 510쪽 21100원 -12월14일 출간
 - 64권 <들꽃면지6권 금계국꽃호> 506쪽 21000원 -11월15일 발행
 - 63권 <들꽃면지5권 참꽃> 528쪽 21900원 -10월19일 발행
 - 62권 <일상의 기쁨>(시집시리츠10권) 210쪽(올컬러) 13400원 -10.4일 발행
 - 61권 <들꽃면지4권 동자꽃> 510쪽 21300원 -9월13일 발행
 - 60권 <들꽃면지3권 산부추꽃> 508쪽 21100원 -8월 30일 발행
-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58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22.11월 재정결산

2022년 11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민학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지경희 최경자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7분이 1,36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12.17일 까지 7402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65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나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새로 나온 책

들꽃편지 제7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7권 만들레호
최용우 편집 510쪽 21,1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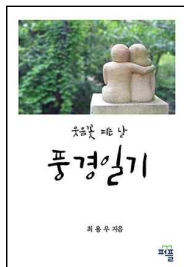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32년 동안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그동안 펴낸 〈들꽃편지〉를 약 500쪽 분량으로 합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7권〉은 2003.2월 제250호부터 2003.11월 제290호까지 10개월 동안 발행한 40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어부동 마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섬을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돕는 환대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저는 학교 2층 교실 한 칸에 마련된 책방에서 열심히 글을 쓰며 월간〈들꽃편지〉를 만들고 주일에는 〈들꽃피는교회〉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매일 한 편씩 글을 써서 인터넷 이-메일로 발송하는 〈햇별같은이야기〉가 2000회 발행을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수도원’ 공부를 시작했으며, 정원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는 수많은 글을 열심히 받아 적었던 시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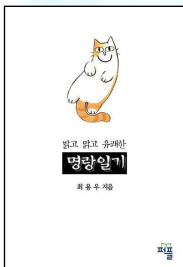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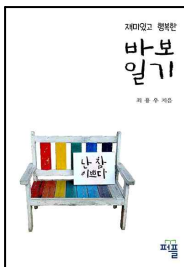
풍경일기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면 거리가 숨을 쉽니다. 발길 닿는 곳엔 연초록빛 번지고요 햇살도 바람도 그의 등을 기댁니다.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365편의 진실한 이야기
14,300원 400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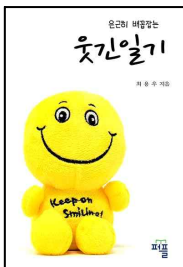
명랑일기

밝고 맑고 유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야기. 삶이 뭐 별건가요?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지요. 읽다보면 저절로 ㅎㅎㅎ 웃음이 지어지는 365편의 명랑한 얘기
15,200원 396쪽 퍼플



바보일기

나는 멍청하고 멍청하여야. 나 홀로 바보 같고 비루하구나. -라던 노재(老子)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당대에 빛나고 푹푹했던 그 많은 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365편의 바보같은 이야기
23,900원 394쪽(컬러) 퍼플



웃긴일기

우리의 삶은 신비와 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서 자세히 보고 쓴 365편의 은근히 배꼽잡는 웃긴 이야기
23,800원 396쪽(컬러) 퍼플



숲속의 아침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집을 나와 갈 곳 없이 방황하며 공원 의자에서, 도서관에서, 산속에서 수첩에 끄적거리며 눈물로 썼던 詩를 모아 첫 번째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7,200원 138쪽 퍼플



설레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그려낸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심장이 벌떡거릴 만큼 감동적인 시집. 이 세상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6,700원 146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47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